

#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과 전개:

이슬람 부흥운동의 맥락에서\*

김동엽\*\*

##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이슬람 부흥운동이 필리핀 무슬림 공동체에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들의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과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은 독립 후 중앙정부가 추진한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리주의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이슬람 부흥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선교와 교육활동으로 전개된 이슬람 부흥운동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지역과 종족 단위로 분열되어 있던 필리핀 무슬림들에게 통일된 민족 정체성, 즉 모로 민족주의를 탄생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전개하고 있는 분리·독립 운동은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수많은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필리핀 정부의 미약한 분쟁해결 능력과 무슬림 세력 내부의 지속적인 분열, 그리고 외부세력의 미온적이고 근시안적인 중재 행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요소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미래는 여전히 진행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어:** 필리핀, 민다나오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 이슬람 부흥운동, 모로 민족주의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2A03034378). 출고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부산외대 동남아시아지역원 HK조교수

## I. 머리말

동남아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이 민족(혹은 종족)이나 문화적 구분에 따른 기보다는 식민지 역사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근대국가체계 내에 다수의 민족이 공존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그 배경과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문화적 소수민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종종 ‘동남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는 말로 묘사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기독교를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는 필리핀에서 문화적 소수민족인 필리핀 무슬림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필리핀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중의 하나는 이들이 통합된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기보다는 지역에 따라 언어적, 종족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분화된 필리핀의 무슬림 사회는 300년이 넘는 스페인과의 투쟁 과정에서도 통합되지 않았다. 더욱이 오랜 기간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정통 이슬람의 성격보다는 다양한 토착적 문화전통이 개별 이슬람 공동체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 무슬림 사회에 통합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으며, 이는 시기적으로 아랍의 이슬람국가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전파된 이슬람 부흥운동(Islamic Resurgence) 혹은 이슬람화(Islamization)와 그 맥을 같이한다.

본 글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전파된 이슬람 부흥운동이 필리핀의 이슬람 공동체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과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오랜 식민통치를 경험하고 독립을 획득한 국가에서는 식민지배 시기에 구조화된 경제 사회적 계층구조와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국가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무슬림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슬

람 부흥운동이 무슬림 사회의 정치적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필리핀의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시각으로는 주로 정치·경제적 접근이 지배적이다. 즉 서구적 사회문화 정향을 가진 다수의 가톨릭이 말레이적 사회문화 정향을 가진 소수의 무슬림을 식민지배 시기부터 독립 이후인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주변화(marginalization) 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으로 분리독립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Gowing 1979). 한편 오랜 식민지정부와의 투쟁을 통해 필리핀 무슬림들은 지배적 가톨릭 세력에 대해 비문명화된 그룹으로 타자화 되었으며, 이들을 주류사회로 통합하는 것은 문명화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는 타자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슬람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밀리간(Milligan 2006)은 국가통합을 위한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무슬림의 집단적 저항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1960년대 말부터 전개된 필리핀 무슬림의 정체성 강화와 분리독립을 향한 열망은 근대화, 서구화, 그리고 균일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McKenna 1988). 즉 독립 후 근대화 이론에 입각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분쟁을 야기했다고 보고, 필리핀 정부는 무슬림 지역의 경제발전을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시각들은 오늘날까지 필리핀 정부와 무슬림 반군단체 간의 평화협정이 타결되고, 폐기되는 악순환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분리주의 운동을 단순히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의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독특한 전개양상은 보다 새롭고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요구한다. 필리핀 무슬림들의 역사·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제 이슬람 부흥운동의 영향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가톨릭과 소수의 무슬림이 공존하는 필리핀 정치체제 내에서 국민적 통합

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무슬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전파된 이슬람 부흥운동의 맥락에서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냉전시대 이후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두 문명 간의 충돌의 원인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작은 사례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필리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필자는 필리핀 현지의 대표적 이슬람 연구기관인 국립필리핀대학교 이슬람연구소(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IS-UP)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sup>1)</sup> 분쟁지역으로 구분되어 접근이 여의치 않은 민다나오 무슬림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주제에 관한 필리핀 무슬림들의 견해를 알아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IIS-UP를 졸업한 무슬림 학자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다수 참조했다. 본 논문은 총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머리말에 이어 제2절에서는 이슬람 부흥운동과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을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을 바라보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다. 제3절에서는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절에서는 이슬람 부흥운동이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에 끼친 영향과 필리핀 정부의 접근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모색했다. 제5절에서는 본 논문의 논지를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간단히 제시했다.

1) 필리핀 현지조사는 2013년 2월 16~23일에 실시되었다.

## II. 이슬람 부흥운동과 분리주의 운동

이슬람 부흥운동은 오랜 역사적 배경과 시대상황에 의해 생성되고 전개되어 왔다. 이 운동은 만연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비종교적인 이념에 대해 온전한 이슬람식 삶의 방식이 생명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왜곡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수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이희수 1995b, 266, 197).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부흥운동을 근대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지만,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또한 근대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근대화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자본주의적 경제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슬람 국가에 서구의 제도들과 생활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졌다. 정치 엘리트들의 지도력은 약화되고 이슬람 형제애가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이 붕괴되었다. 국가는 근대적 교육을 통해 가족과 남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고, 매스 미디어는 서구의 물질주의와 사치스런 생활방식을 전파함으로써 무슬림 여성과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경향이 이슬람 부흥운동을 촉발한 배경을 제공했다(Lapidus 1997, 446; Lewis 1990).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정치·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슬람 부흥운동의 주요 전략은 교육과 공동체 조직을 통해 근본에서부터 이슬람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발전된 기술적, 과학적 환경에서 이슬람 부흥운동은 근대국가와 근대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주도세력도 근대적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관료,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회계층도 일반적으로 근대국가, 근대교육체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근대경제의 산물이다(Lapidus 1997, 447-448). 대부분 이슬람 사회가 부족이나 지역 공동체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 부흥운동은 꾸란과 순나에 호소하여 다

양성을 극복하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1970년대 이란혁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아랍-이스라엘 분쟁, 그리고 오일머니 등을 통해 이슬람 부흥운동은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이것이 보편적이고 세계적 현상이었지만, 개별 국가들은 각각의 환경에 따라 다른 수준의 이슬람 부흥운동을 경험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역사·문화적 특성,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무슬림 인구비율, 교육제도, 그리고 이슬람의 정치화 수준 등에 따라 이슬람 부흥운동의 영향이 달리 나타난다(Mutalib 1990, 878-879). 무슬림 인구가 전체 국민의 약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필리핀에서 이슬람 부흥운동은 주변의 동남아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분리 독립 운동이라는 과격한 정치적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슬람에서 상정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서기 622년에 처음으로 만든 종교공동체 ‘메디나의 움마’(Ummah)에 있다. 무함마드는 사막의 다양한 유목민족을 하나의 종교공동체로 바꾸었으며, 움마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신정체제(theocracy)라고 할 수 있다. 16-17세기 유헤의 개혁운동을 통해 종교로부터 국가를 분리시킨 기독교계와는 달리 이슬람은 그런 원칙을 개발하지 않았다. 많은 이슬람 사상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를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종교 공동체, 즉 이슬람국가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주장해 왔다(정상률 2012, 40-41; Lewis 1990). 정치적으로 권력분립과 여러 자유권이 보장되지만 꾸란과 하디스의 절대적 권위에 위배되지 않는 ‘이슬람식 신정민주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사적소유 및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지만 이슬람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금하는 ‘이슬람식 자본주의’를 이상적인 이슬람 국가의 요소로 상정한다(이희수 1995b, 269-271; 정상률 2012, 33). 전통적인 이슬람의 관점에서 세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슬람의 집(Dar al-Islam), 즉 이슬람의 법과 신념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둘째는 불신자 혹은 전쟁의 집(Dar al-Harb)으로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며 개종과 개도의 대상이 된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불신자의 집이며, 이슬람의

집 내부에도 이슬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므로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Lewis 1990).

필리핀 무슬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국제적 이슬람 부흥운동 조직으로는 일리야스(Maulana Muhammad Ilyas, 1885~1944)가 창시한 타블리 자마아트(Tablighi Jamaat)와 마우두디(Maulana Maududi, 1903~1979)가 창시한 자마아티 이슬라미(Jamaat-i Islami) 등이 두드러진다. 타블리 자마아트는 교육을 통한 개인생활의 이슬람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슬람 국가에서건 비이슬람 국가에서건 신앙의 함양과 영적인 생활의 실천을 강조한 반면, 자마아트 이슬라미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이희수 1995a, 271). 특히 195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사이에 이슬람 부흥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련의 급진적인 이슬람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들은 성전(聖戰)으로 규정하는 지하드(jihad)를 통해 목표를 달성코자 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필리핀의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마우두디에 따르면, 이슬람은 인습에 젖은 종교가 아니며, 인위적인 국경을 초월해서 투쟁과 개혁을 도모하는 혁명이념이며, 그 구성원은 바로 혁명당원이다. 그리고 그 행동 실체의 결집체가 이슬람 개혁당이다. 지하드는 바로 이러한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이자 수단이며, 글을 통한 호소, 선전과 연설, 혹은 자금과 물자제공 등과 같은 단계를 거친 후, 이러한 방법들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투쟁 방법으로 무력항쟁을 설정한다(김정위 1993, 5-6; 이희수 1995b, 272-273).

한 국가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에 근거한다. 분리주의 운동의 시작은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정체성의 분열에서 출발한다. 민족의식(ethnicity)을 규정짓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원초주의(primordial)와 도구주의(instrumental), 혹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있다. 원초주의에서는 민족을 가족이나 혈족 관계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Geertz 1962). 반면 도구주의나 구성주의는 민족의식이 특정 경계 안의 개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생겨난 것이며, 특히 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화의 전략으로 민족의식이 강조된다(Gellner 1981).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필리핀 무슬림의 민족의식은 원초주의보다는 도구주의 혹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분리주의 운동의 맹아가 민족의식에 내재한다면, 이의 발아는 다양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상황에 근거한다.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구어(Gurr 1993)에 따르면, 분쟁이 촉발하는 원인으로 소외감의 극대화, 정치적 야심가의 등장, 허약한 중앙정부, 그리고 대외적 지원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슬람 부흥 운동은 무슬림 사회의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외부적 지원의 원천이 됨으로써 소수의 억압받는 무슬림 공동체에 분리독립 운동이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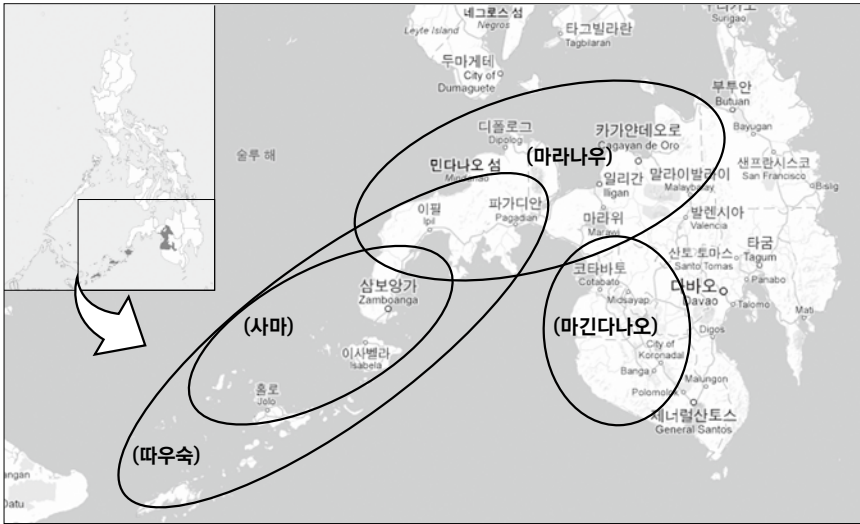
### III.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배경

#### 1. 필리핀 무슬림 사회의 특성과 역사

필리핀 무슬림 공동체는 13개의 주요 종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언어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4개 종족집단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 민다나오 남서부에 작은 섬들로 구성된 술루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따우숙(Tau Sug, 해류의 사람)과 사마(Sama, 연합부족)가 있고, 민다나오 섬 남서부 평원에 거주하는 마긴다나오(Magindanaw, 범람원 사람)와 그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 인근에 거주하는 마라나우(Maranaw, 호수의 사람)가 있다. 이들은 현재 필리핀 행정 구역 구분상 제9지역(Region IX)과 제12지역(Region ?), 그리고 나중에 출범

2) 이에 대한 필리핀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 있다.

〈그림 1〉 필리핀 민다나오 무슬림 집단 거주지역



지도출처: Google Map Site.

주: 작은 지도의 짙은 부분은 이슬람자치구(ARMM)를 나타냄.

하는 이슬람자치구(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 ARMM)에 분포하고 있다.

이슬람이 정확하게 언제 필리핀에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타르실라(Tarsila, 가족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4세기 후반 경에 막둠(Karimul Makdum)이라는 사람이 술루에 도착하여 이슬람을 설교하고 모스크를 세웠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약 1450년경에 술루에 이슬람 술탄이 등장했고, 마긴다나오에는 약 1515년경에 술탄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Finley 1916, 36; Majul 1999, 11-31). 스페인이 도래하기 이전에 필리핀에 존재했던 무슬림들은 아랍과 인근 말레이와의 혼혈과 풍족한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건장한 외모를 지녔으며, 오랜 문헌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적 수준도 우월하여 비사야나 루손에 사는 비무슬림 부족들과 구분되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문명화된 부족들로서 이들은 주변으로 이슬람을 급속히 전파시키고 있었다. “만약 스페인의 침략이 100년만 늦었다더라면 필리

편의 모든 군도는 이슬람화되었을 것이다”라는 역사적 가정이 설득력 갖는다(Finley 1915, 354-355).

스페인의 도래와 식민통치는 필리핀 무슬림의 역사적 진화를 멈추게 하였으며, 오히려 퇴보의 길을 가도록 했다. 필리핀 군도를 식민지화한 스페인 식민지정부는 명목상으로 필리핀 무슬림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했지만, 실제로 무슬림들은 스페인의 영향과는 동떨어진 독립적인 문화, 경제, 군사적 영역을 유지했다. 필리핀 무슬림은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곧 무슬림 지역의 고립화와 경제적 주변화로 이어졌다(Milligan 2003, 470). 본국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어족(Moor) 무슬림에 대하여 수세기 동안 재정복 전쟁(Reconquista, 711-1492)을 벌였던 스페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무어의 스페인어 발음인 모로(Moro)로 불렀다. 모로는 오늘날까지 필리핀 무슬림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 식민통치가 1898년 마감되고, 이를 승계한 미국 군인들이 필리핀 무슬림과 처음으로 조우하게 된 것은 1899년 5월 19일 홀로(Jolo)에서였다. 새로운 침략자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후 술루의 술탄은 8월 20일 미국과 베이츠협약(Bates Treaty, 미-술루 협약이라고도 함)을 체결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에 대한 통치권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 받았다. 그러나 식민지정부는 1902년에 이 조약을 돌연 파기하고 직접통치를 위한 법(Organic Law for the Moro Province)을 공포했다. 그러자 편지를 보내 이 법을 정중히 거절했으며, 이후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미국의 통치에 저항하여 무력투쟁을 벌였다(Finley 1915, 359). 식민지정부는 1903년 6월 1일 모로지역(Moro Province)을 특별 구역으로 선포하고 타지역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1914년 1월 1일부터 식민지정부가 군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모로는 필리피노(Filipino, 필리핀인)에 통합되었고, 모로지역은 민다나오 및 술루 행정구역(The Department of Mindanao and Sulu)으로 변경되었다(Finley 1916, 28-34).

미국 식민지 시대에도 필리핀 무슬림들의 정치·경제적 주변화는 지속되었다. 식민지정부는 무슬림에 대해 유인정책을 펼쳤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서구적 교육을 통해 문명을 전파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필리핀의 타지역에서 기독교도들을 무슬림 거주지역으로 대거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식민지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이주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며, 또한 이주자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불하했다. 식민지정부는 각종 토지 소유권 관련 법률을 통해 많은 토지를 국유지로 만들었으며, 외국기업의 진출을 유도하여 많은 토지를 기업적 농장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점차적으로 상실했다(Islam 1998, 445). 1935년 필리핀 자치정부(Commonwealth)가 수립되기 전에 라나오(Lanao)에 있는 120명의 다투(Datu, 족장)들이 연합하여 “우리는 다른 필리핀 지역과 함께 독립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수백 년 동안 그들과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땅을 모로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는 내용의 단살란선언(Dansalan Declaration)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남아 있다가, 이후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길 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필리핀 주류 민족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무슬림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다(Kamlan 2003; Majul 1988, 899).

한편 전통적 권위를 대표하는 술탄은 식민지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술탄과 근대적 헌법체제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이중적인 정치체제가 등장했다. 술탄은 사회적,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헌법적 지도자는 행정부의 일을 다루었다(Bakuludan 1996, 105). 술루정치의 역사를 연구한 푼뚜칸(Puntukan 1992)은 새로운 식민지 체제에 비협조적이었던 일부 전통적 엘리트들의 권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전통적 엘리트들은 자녀들을 근대식 학교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점차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새로운 체제에 협조한 사람들은 식민지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직위에 임명되었다. 또한 다수의 다투들은 필리핀 자치정부 시기 집권정당인 국민당(Nationalista Party)에 참여하여 다양한 공

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록 중앙정부에 참여함으로써 부와 권력을 차지했지만, 이는 곧 무슬림 사회 전반의 수탈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전통적인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일례로 이들은 식민지정부를 대신하여 기독교 이주민들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것을 돕는 입장에 있었으며, 이는 전통사회를 수호해야 하는 다투의 의무와 배치되는 행태로서 무슬림 공동체의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되었다(Brown 1988, 72).

1946년 독립과 함께 필리핀 정부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강조하는 통합정책을 추진했다. 독립 초기에 필리핀 사회는 항일 무장투쟁에 가담했던 소작농들의 처우문제를 놓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sup>3)</sup>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코자 필리핀 정부는 민다나오 이주정책을 추진했다. 이주민들에게 각종 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수의 가톨릭이 민다나오로 이주했다. 그 결과 1948년부터 1970년까지 민다나오의 인구는 타 지역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주정책은 민다나오에서 무슬림을 소수민족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Bakuludan 1996, 107; Brown 1988, 60). 민다나오 무슬림들은 점차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소외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막달레나(Magdalenia 1977, 303-304)는 “좌절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이론을 통해 민다나오 무슬림들의 과격화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필리핀 정부는 1957년 국가통합위원회(Commission on National Integration, CNI)를 설치하여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로써 무슬림 사회를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Brown 1988, 60).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민다나오 지역에 대규모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었으며, 대신에 많은 수의 무슬림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근대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근대화 정책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무슬림의 정체성을 강화시

3) 후크(Hukbalahap)이라고 불리던 항일 게릴라 집단은 독립 후 토지문제를 두고 지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켜 국가적 분열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전의 필리핀 무슬림 사회는 종교적 정체성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필리핀 무슬림의 약 80%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1954년 상원의원 알몬토(Domocao Almonte)의 의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필리핀 무슬림들로 하여금 이슬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알몬토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1961년에 민다나오국립대학(Mindanao State University, MSU)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던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학운영이 정상화 되었다. 1973년에는 MSU와 국립필리핀대학교(UP)에 각각 이슬람 연구소(King Faisal Center for Arabic, Islamic and Asian Studies-MSU; IIS-UP)가 세워져 이슬람의 교육과 연구의 기반이 강화되었다. 또한 많은 이슬람학자들과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으로 필리핀 무슬림에 대한 인식은 차츰 변화하게 되었다(Calimba 1990, 117-119).

독립 초기 이주정책과 근대화 정책은 민다나오 무슬림 지역의 정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술루와 마긴다나오의 정치 엘리트들의 변화를 추적한 일부 연구들(Puntukan 1992; Bakuludan 1996)에 따르면, 전통적 엘리트 가문에 속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이주민들의 유입과 농촌사회의 도시화, 그리고 그동안 귀족계급에게만 열려있었던 교육기회가 보편화 되면서 나타났다. 특히 마르코스 정권(1965-85)은 전통적 정치엘리트들을 근대적 기술관료로 대체하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엘리트들의 등장을 낳기도 했다. 정치적 라이벌 간의 치열한 경쟁은 각종 부정과 부패, 그리고 폭력과 무질서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해외, 특히 이집트에 유학하고 돌아와 이슬람 신학자(Ulama)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슬람적 가치를 내세워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이유를 제공했다(Panda 1989, 34-35). 또한 이슬람 반군활동을 통해 명성을 얻은 일부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도 나타났다(Puntukan 1992, 51-53). 이들은

그동안의 부패한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이슬람 신념에 입각한 새로운 선거와 정치를 펼치고자 했으며,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 2.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과 전개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에는 구어(Gurr 1993)가 지적한 네 가지 소수민족 분쟁발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로 무슬림 사회의 정치·경제적 박탈감의 극대화이다. 막달레나의 연구(Magdalená 1977)에 따르면, 기독교도들의 이주에 따른 무슬림들의 주변화와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가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의 폭력사태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무슬림 인구수의 상대적 비율 감소와 높은 문맹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좌절감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및 임차문제가 분쟁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 인구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1971년 선거는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변동은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켰으며 잦은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1972년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정치권력을 기독교도가 주도하는 중앙정부에 집중시켰으며, 지역의 정당한 정치활동에도 제한을 가했다. 또한 그동안 기독교도 사병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유하고 있던 총기를 정부에서 회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자, 이를 무슬림에 대한 무장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여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곧 무슬림들도 하여금 반체제 저항운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배경이 되었다(Noble 1976, 411-412).

둘째로 정치적 야심가의 등장이다. 무슬림 사회의 정치·경제적 박탈감을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것은 전통적 엘리트들이었다. 1968년 최초로 필리핀에서 범무슬림 저항운동 조직인 무슬림독립운동(Muslim Independence Movement, MIM)을 선언한 사람은 코타바또(Cotabato)

지역의 다투이며 오랜 정치엘리트였던 마탈람(Udtog Matalam)이었다.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무슬림 지역에 기독교도의 수가 늘어나 다수가 됨에 따라 무슬림 정치엘리트들의 공직선출이 어렵게 되었고, 이들은 기독교도에 의한 지배에 불안해하는 무슬림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다(Brown 1988, 73).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마르코스 정권은 MIM 지도자들에게 정부의 고위직을 제공함으로써 회유하였다. 마탈람을 포함한 다수의 MIM 지도부가 필리핀 정부에 협력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젊은 MIM 간부들이 조직을 이탈했다. MIM의 뒤를 이어 분리주의 운동을 주도한 조직은 룩만(Haroun al-Rashid Lucman)이 주도한 방사무슬림해방조직(Bangsa Muslim Liberation Organization, BMLO)이었다. 그러나 BMLO도 전통적 엘리트들의 독단적 조직운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도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전통적 엘리트들의 행태에 불만을 품은 젊은 무슬림 혁명가들이 이후 분리주의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Calimba 1990, 98). 대표적 인물로 미주아리(Nur Misuari)와 살라맛(Hashim Salamat)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무슬림민족해방전선(Muslim National Liberation Fron, MNLF)이 조직되었다. MNLF는 젊은 무슬림들로 구성된 군사조직(Bangsa Moro Army)을 갖추어 마르코스 정권에 대해 성전(jihad)을 선포하고 게릴라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셋째로 소수민족 분쟁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능력부족이다. 1960년대 필리핀은 평균 5%대의 비교적 낮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사상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공산주의 운동이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였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민다나오 지역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에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지고, 무슬림들의 주변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별다른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 1969년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는 마르코스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상을 오히려 영구집권의 길을 여는 빌미로 삼았다. 1972년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압적 통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혼란상은 잦아들었지만, 공산당 세력과 이슬람 반군의 활동은 더욱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국내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마르크스 정권의 대외 의존도는 더욱 증가하였고, 이는 정부가 외부의 압력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원유의 80%를 이슬람 국가에서 수입하는 필리핀으로서는 이슬람 국가들의 외교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Milligan 2003, 472; Islam 1998, 455).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은 필리핀 정부의 분쟁해결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로 무슬림 반군에 대한 외부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필리핀 무슬림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외부로 전파되자 민다나오의 분쟁은 전세계 이슬람 국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슬람 국가들은 반군에게 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이집트와 말레이시아는 장차 필리핀 무슬림 최대 반군조직이 되는 MNLF를 이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1971년 7월 리비아는 마르크스에게 작금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더불어 무슬림 피난민들에게 의료와 기타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케손시에 모스크와 이슬람센터를 설립할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을 진화할 목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1972년 1월 이슬람 각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무슬림 지역을 순방하는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3월에는 국제 이슬람국가 최대 조직인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가 필리핀 무슬림의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Majul 1988, 905). MNLF는 서구와 OIC, 그리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강력한 대정부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다.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Jeddah)에서 열린 제6차 OIC 외교장관회의는 MNLF를 필리핀 무슬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공식 인정하고,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협상에 나서도록 종용했다(Islam 1998, 455).

이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필리핀 무슬림을 분리주의 운동으로 이끈

요인이 되었으며, 일련의 결정적 사건들을 계기로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분리주의 운동을 촉발시킨 사건은 1968년 3월에 발생한 자비다(Jabidah) 학살 사건이었다. 코레히도르(Corregidor) 학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되어 있는 사바(Saba)에 대한 영토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필리핀 군부에 의해 소집되어 코레히도르 섬에서 훈련받던 무슬림 청년 수십 명이 의문의 학살을 당한 것이었다. 사건의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무슬림 사회에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으며, 또한 많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조직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이슬람 세력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본격화된 무장투쟁은 많은 비극적 사건을 초래했다. 1971년 6월에는 최소 70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도 사병조직인 일라가(Ilaga)에 의해 살해되는 마닐리(Manili) 학살사건이 발생했고, 그해 11월에는 40여명의 마라나오 무슬림들이 군인과 기독교도들에게 살해되는 따쿱(Tacub)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무력분쟁으로 인해 1971년 말 코타바토와 라나오에서 최소한 10만 명의 무슬림 피난민이 발생했다. 이는 이후 장기간 전개되는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이었다(Majul 1988, 902-905).

한편 무슬림 반군의 조직적인 저항과 이슬람국가들로부터의 강력한 외교적 압력에 직면한 마르코스 정권은 MNLF와의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영부인 이멜다 여사의 리비아 방문으로 1976년 12월 23일 트리폴리(Tripoli)에서 최초로 필리핀 정부와 MNLF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슬람 세계로부터의 외교적 압력에 떠밀려 협상에 임한 마르코스 정권은 민다나오 내의 13개 지역에 이슬람 자치구를 설치할 것을 약속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평화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자치권의 이행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의 불씨를 남겼다. 필리핀 정부는 MNL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무슬림 거주지역을 행정구역상 제9지역과 제12지역으로 분리시켰다.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행보는 협상안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므로 MNLF는 다시금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Majul 1988, 909). 트리폴리 협정은 MNLF의 내부에 분열이 가져왔다. 미주아리의 독단과 정부와의 협상에 불만을 품은 MNLF 부의장 살라맛이 새로운 반군조직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을 조직했다. 또한 마르코스 정권의 회유정책에 따라 일부 MNLF의 일선 지휘관들이 반군활동에서 이탈하여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다(Islam 1998, 449-450).

이후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반군 간에는 수차례의 평화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모스 집권시기였던 1996년 9월 2일에 정부와 MNLF는 20년 전에 합의한 트리폴리 협정문을 기초로 하여 최종 평화협정에 조인했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민다나오 무슬림 지역에는 무슬림 자치구(ARMM)가 설치되었고, MNLF의 미주아리는 주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MILF는 최대 반군조직으로 부상했으며, 같은 해 12월 대규모의 시위를 조직하여 정부군과의 지속적인 싸움을 결의했다. 1998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는 MILF와 전면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2008년 7월 아로요 정부는 MILF와 민다나오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협정안(Memorandum of Agreement on Ancestral Domain, MoA-AD)에 합의했으나, 필리핀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협정체결이 무산되었다. 2010년 집권한 현 아키노 정부는 MILF와의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2012년 10월에 평화정착과 무슬림 자치정부 수립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he Bangsamoro)에 서명했으며, 현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까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 내용의 위헌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무슬림 사회 내에서도 협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 IV. 이슬람 부흥운동과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

### 1. 이슬람 부흥운동과 모로 민족주의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 필리핀 남서부 지역은 8세기경 자바를 중심으로 흥기한 사일렌드라(Sailendra) 왕조의 세력권 하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많은 전통문화 속에는 사일렌드라가 수용했던 인도의 영향이 남아 있다. 또한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술루지역은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10세기 말에 중국인이 방문한 것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대(1368-1644)에는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종 유물과 여전히 남아 있는 중국식 생활풍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의 도래와 더불어 시작된 서구 식민지 시기에는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이는 곧 이슬람 교육의 결핍을 낳았다. 또한 미국 식민지의 시작과 더불어 추진된 통합정책은 필리핀 무슬림의 생활태도와 신념에 많은 서구적 요소를 가미시켰다. 이처럼 오랜 관습과 외부 문화의 영향으로 필리핀 이슬람에는 비이슬람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를 ‘민속이슬람’(folk-Islam)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구분하기도 한다(Esmula 1994, 15-21). 필리핀 무슬림 사회는 같은 종교를 신봉하지만 언어·종족적 구분에 따라 마라나오, 따우숙, 마긴다나오와 같은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전통적 생활문화가 근본적인 이슬람의 전통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체결은 이슬람 부흥운동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했다(Milligan 2003, 476).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이슬람 부흥운동이 필리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필리핀의 독립과 더불어 1940년대 말부터였다. 유명한 이슬람 학자이자 선교사인 싯디끄(Alim Muhammad Siddique)가 술루를 방문하여 따우숙의 무지하고 왜곡된 이슬람 행태를 목격하고, 이슬람 교육의 필

요성을 외부에 알렸다. 이에 따라 이슬람 선교사가 파견되었으며, 공식적인 마드라사(madrassa, 이슬람 신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Esmula 1994, 34; Tulib 1991, 14). 1948년 초 이집트의 알-아즈하르(Al-Azhar)대학에서 필리핀에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그 이듬해부터 젊은 무슬림 학생들이 이집트로 유학을 떠나기 시작했다. 최초의 유학생인 마라나오 출신 바시르(Anwar Bashir)와 마긴다나오 출신 압둘라만(Sulaiman Abdul Rahman)이 1964년에 졸업함으로써 이집트로 유학을 떠나 이슬람 학자가 된 최초의 필리핀인이 되었다. 이 중 바시르는 졸업 후 필리핀으로 돌아와 이집트 정부의 후원으로 월 240달러를 받으며 이슬람 선교사로 일했다. 1968년에는 약 300명의 필리핀 무슬림 학생들이 이집트 정부의 장학생으로 카이로에서 유학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점점 확대되는 외부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는 필리핀 무슬림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켰다(Tulib 1991, 16).

민다나오에 약 100여개가 넘는 다와(Da'wah, 이슬람의 선교)조직이 생겨났으며, 이 중 17개는 세계 다와 주소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조직은 1973년 젊은 무슬림 사니(Faisal C. Sani)와 라긴답(Ali Laguindab)이 중심이 되어 세운 수바닐무슬림타블라이알알람(Subhanil Muslimeen Tabligh Al Alam)으로서 약 50,000명의 조직원을 거느렸다(Calimba 1990, 128-130).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국제적 무슬림 조직인 자마 타블라이(Jama'ah Tabligh, 메시지의 전파) 운동도 필리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필리핀 타블라이는 젊은 무슬림들의 이슬람적 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법조인이나 교수 등 전문직 사람들이 이를 주도했다(Esmula 1994, 34-36). 타블라이는 성인들을 위한 비공식적 이슬람 교육제도로써 필리핀에서는 이 운동을 순회하는 이슬람대학 운동으로 인식하기도 한다(Milligan 2006, 420). 타블라이의 목표는 이슬람적 의식과 이슬람 형제애를 강화함으로써 무슬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Bandahala 1994, 23). 다와 운동과 타블라이의 활동은 필리핀 무슬림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슬람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으며, 모스크와 마드라사의 수도 증가하

고, 메카 순례(Hajj)에 참가하는 순례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히잡 착용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마약 복용 비율이 줄어드는 등 신앙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Bandahala 1994, 60; Calimba 1990, 128-130; Esmula 1994, 58).

이와 같은 이슬람 부흥운동이 필리핀 무슬림 사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무슬림 정체성의 강화를 통해 언어·종족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필리핀 무슬림 사회가 모로(Moro) 민족주의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슬림 정체성에 기초한 모로 민족주의는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표현이자, 서구적 근대화 과정에서 자신들을 소외시킨 사람들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기도 했다(Milligan 2003, 476). 민족주의는 근대화의 필연적인 요소이며 또한 산물로 간주한 겔너(Gellner 1981)의 견해를 적용하면, 전통적 요소인 계층과 종족 분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로 민족주의를 탄생시킨 필리핀 이슬람 부흥운동도 근대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모로 민족주의의 탄생을 단지 소수민족의 정치·경제적 주변화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 이는 필리핀 무슬림 사회가 300여 년이 넘는 스페인 식민지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통합된 민족주의를 탄생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결국 모로 민족주의의 탄생을 이슬람 부흥운동이라는 종교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 무슬림들은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비교적 강하게 유지하면서 이슬람을 매개로 모로의 집단적 소속감을 만들어 낸 것이다. 모로 민족주의는 동시에 지배적 억압집단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본체를 의미하기도 한다(Milligan 2003, 477).

모로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새롭게 정립된 집단정체성을 근대적 국가체제 하에서 어디로 귀속시키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동안 필리핀의 국가 정체성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이슬람은 필리핀 역사에서 대부분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 언급된 부분은 많은 경우 왜곡되었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마홀(Cesar Majul)과 라술(Jainal Rasul) 같은 무슬림 지식인들은 필리핀 남부의 문화와 역

사를 필리핀 국민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리핀 역사를 기술할 것을 촉구하면서, 필리핀 역사의 일부로서 모로 민족 정체성을 자리매김 하고자 했다. 또한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의 갈등은 무슬림의 경제적 향상과 교육의 확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Calimba 1990, 115-116; Milligan 2003, 479-485). 그러나 무슬림들의 주변화가 지속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온건하고 개혁적인 접근법보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분리주의 운동이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국가통합위원회(CNI) 장학생으로 수도 마닐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무슬림 학생들은 마르코스 정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급진적 저항운동을 접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장차 MNLF를 창설하고 이끄는 반군의 지도자가 되었다. MNLF는 모로 민족주의를 기초하여 독립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추구한 최초의 반군조직이 되었다(Calimba 1990, 100; Majul 1988, 901; Noble 1981, 1098).

## 2.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담론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이 처음부터 이슬람 부흥운동과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초기에는 서구적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탄압받는 소수민족의 단결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코자 하는 전통적 엘리트들에 의해 이 운동이 주도되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무슬림독립운동(Muslim Independent Movement, MIM)과 방사모로이슬람해방조직(Bangsa Moro Islamic Liberation Organization, BMLLO)이 있다. MIM은 1960년대 말 필리핀 무슬림들의 정치·경제적 주변화로 인한 박탈감과 기독교도와 무슬림 간의 무력충돌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위기감에 편승하여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을 시작한 최초의 조직이다. 이 조직을 이끈 마탈람(Datu Utog Matalam)은 전통적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태평양 전쟁 당시 항일 게릴라 부대를 이끌었던 경력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과 유사한 배경을

가졌으며 매제(妹弟)이기도 한 코타바토 출신의 펜다툰(Pendatun) 형제와 협력하여 지역 정치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1955년부터 196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코타바토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1967년 그는 지역 선거에서 낙선하고, 이어서 발생한 1968년 자비다 학살사건을 계기로 MIM을 창설했다. MIM은 전통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 하에 조직된 것으로 평가된다(Islam 1998, 454). MIM은 이후 명칭에 ‘무슬림’ 대신 ‘민다나오’를 넣음으로써 ‘민다나오독립운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써 지역의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타 토착 원주민과 기독교도도 포함하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드러냈다. 마탈람을 포함한 MIM 지도부가 마르코스 정부의 회유정책을 수용하여 분리독립 주장을 철회하고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됨으로서 MIM은 동력을 상실했다(Beckett 1995; Buendia 2005).

MIM의 뒤를 이어 BMLO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하원의원 룩만(Raschid Lucman)이 1971년에 무슬림 정치 엘리트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것이다. 마라나오에 기반을 둔 BMLO는 필리핀에서 분리된 이슬람 국가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이슬람 해방조직을 포괄하는 중심적 조직이 되었다. 처음에는 조직의 명칭에 모로(Moro)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부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명함으로써 1984년에 모로 대신 무슬림(Muslim)을 사용하여 방사무슬림해방조직이 되었다. BMLO는 무력으로 무슬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젊은 무슬림들을 말레이시아 사바로 보내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BMLO 지도자들이 분리독립이 아닌 민다나오 무슬림의 정치적 자치권 획득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게 되자, BMLO의 젊은 엘리트들은 이를 굴복으로 간주하여 조직을 이탈해 모로민족해방전선(MNLF)를 조직하였다.

MNLF는 1969년 말레이시아 플라우 팡코르(Pulau Pangkor)의 무슬림 반군 훈련장에서 조직되었으며, 제1기 훈련생이었던 미주아리(Nur Misuari)가 주도했다(Noble 1976, 411). MNLF의 탄생은 그동안 필리핀 무슬림 사회를 이

끝었던 전통적 엘리트들의 행태에 대한 젊은 무슬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었다. MNLF의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대적 대학교육을 받고 전문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부 전통적 엘리트 계급 출신도 있지만 다양한 계급을 망라했다(Majul 1988, 906). MNLF의 지도자 미주아리는 평범한 따우숙 가정 출신으로 국가통합위원회(CNI)의 장학생으로 국립필리핀대학교(UP)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미주아리는 필리핀 무슬림 정체성의 기초로 그동안 일부 무슬림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모로를 모든 필리핀 무슬림들의 단결의 상징이자 긍정적 의미로 새롭게 부각시켰다(Buendia 2005). 그는 방사모로에 비무슬림까지 포함하는 대중기반의 통합을 추구했으며, 부조리와 부정의에 저항하여 방사모로 민족의 단합을 촉구했다. 또한 이슬람에 근거한 형제애를 가족보다 우선시하고, 지도자들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조했다. MNLF의 주요한 목표는 종교를 보호하고, 모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며, 분리독립을 통해 민다나오 무슬림(방사모로)의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주아리의 이념은 서구의 민족주의 이념과 유사한 것이었다.<sup>4)</sup> 그러나 미주아리는 오랫동안 필리핀 무슬림들을 구분하고 있던 지역적, 종족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우숙 출신의 미주아리는 따우숙 언어로 자신의 이념을 전달함으로써 타언어를 사용하는 무슬림들의 공감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다른 주류 부족인 마긴다나오와 마라나오 무슬림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Jairi 2007).

미주아리가 주도한 1976년 트리폴리 협정은 MNLF를 분열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MNLF는 두 리더 즉 의장인 미주아리와 부의장인 살라맛(Hashim Salamat)이 주도하는 두 파벌로 나뉘어졌다. 또 다른 부의장 알몬토(Abul

4) 미주아리의 리더십 기간은 1968년부터 2001까지 33년 간 이어졌으며, 다양한 성취를 낳았다. 그는 방사모로 문제를 국제화적 문제로 만들어 필리핀 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리폴리 협정(1976), 제다협정(Jeddah Accord-1986), 최종평화협정(GPR-MNLF Final Peace Agreement-1996) 등을 이끌어냈다(Stern 2012).

Alonto)는 MNLF를 이탈하여 정부에 투항하기도 했다. 살라맛이 이끌던 신 MNLF는 1985년 파키스탄에 본부를 두고 MILF로 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MNLF와 결별했다(Calimba 1990, 99; Majul 1988, 911). 미주아리의 MNLF가 과거 술루 술탄의 지배 지역에 거주하는 따우숙이 중심이 되었다면, 살라맛의 MILF는 과거 마긴다나오 술탄의 지배 지역에 거주하는 마긴다나오 종족이 중심이 되었다(Kamlian 2003). 살라맛은 17세가 되던 1957년부터 이집트에서 유학하면서 이슬람 신학대학(al-Azhar's College of Theology)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귀국했다. 이슬람 학자인 쿠틀(Syed Qutb)과 마우두디(Syed Abul Ala Maududi)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살라맛은 모로 분리주의 운동에 있어서 보다 이슬람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그가 이끌던 MILF는 이슬람을 공식이념으로 삼았으며, 미주아리를 세속적이고 민족주의자로 비판하기도 했다. MNLF가 필리핀 헌법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를 추구한 것과는 달리, MILF는 이를 거부하고 보다 철저하게 이슬람 정신과 법이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Salamat 1998). 살라맛은 2003년 7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그 뒤를 이어 MILF를 이끄는 이브라힘(Murad Ibrahim)은 최근 분리독립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자치정부를 수립코자 현 아키노 행정부와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새로운 분파는 1991년 잔잘라니(Abdurajak Janjalani)가 조직한 아부사얏(Abu Sayyaf Group, ASG)이다. ASG는 주로 따우숙과 사마 종족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주로 MNLF와 MILF에 불만을 품은 젊은 무슬림들로 구성되었다. ASG는 외국인에 대한 납치와 테러활동에도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테러단체로 규정되었다. ASG를 이끌었던 잔잘라니는 1980년대 중동지역에서 유학하면서 급진적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아프카니스탄의 대(對)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ASG는 MNLF가 정부와 타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는 MILF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 대한 비전과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ASG는 이슬

람 정부의 수립이 오직 지하드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잔  
 잘라나는 1998년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2001년 9·11사건 이  
 후 미국의 주도로 강력히 추진된 국제테러단체 소탕작전의 여파로 세력이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SG와 유사한 이념과 활동방향을 가  
 진 단체로서 미주아리의 전 참모였던 알람(Melham Alam)이 이끄는 이슬람  
 민족평의회(National Islamic Command Council, NICC)가 1995년에 조직되어 활  
 동하고 있다(Buendia 2005). 이처럼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은 필리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둬드는 내부적 분열을 통해  
 새로운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로 분리주의 운동의 분열은 이슬  
 람식 사회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함께 전통적인 지역적, 종족적 다양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3. 필리핀 정부의 대응과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전망

필리핀은 군도로 이루어진 지형적 조건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이 큰 국가  
 이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 집중적인 강력한 국가  
 를 형성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 또한 지방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전통  
 적 엘리트들이 중앙에 모여 국가의 각종 이권을 두고 경쟁하는 과두제적  
 정치체제를 나타냄으로써 필리핀은 ‘약한국가’(weak state)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곧 국가의 사회 전반에 대해 침투력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  
 에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이나 공산반군과 같은 반정부 활동에 강력하고 효  
 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필리핀 정부의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접  
 근방식은 엘리트 지향적이며, 또한 근대화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무슬림 엘리트들에 대한 ‘분리와 통치’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구사  
 해 왔다(Calimba 1990, 108-109). 이는 필리핀 무슬림 사회의 다원성을 이용  
 한 접근법으로서, 마르코스 정권이 민다나오의 무슬림 지역을 행정구역상  
 제9지역과 제12지역으로 나눈 것이나, 무슬림 반군 지도자들에게 각종 정

치·경제적 이권을 제공함으로써 반군세력을 분열시켰던 정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결과 반군세력은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분열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또 다른 전략은 근대화 이론에 근거한 국가통합 정책이다. 필리핀 정부는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이 무슬림들의 정치·경제적 주변화로 인한 소외감과 좌절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과 경제개발을 통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무슬림들의 빈곤과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필리핀 정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지원과 무슬림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슬람 학자들이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설립하여 무슬림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했으며, 교육정책에 관한 분권화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공공교육 교과과정에 이슬람의 내용과 가치를 포함시키는 길을 열었다. 중앙정부 내에는 무슬림 관련 전담부서(Ministry of Muslim Affairs)를 둬으로써 무슬림들이 국가의 주류사회에 통합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한 무슬림 자치주(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 ARMM)를 지정하여 무슬림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ARMM 내에서는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정을 두고 재판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물론 이슬람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일부 영역에 국한되며,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필리핀 법률이 적용되도록 했다(Calimba 1990, 108-109).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교육과 자치를 통한 근대화 정책은 오히려 필리핀 무슬림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밀리간(Milligan 2006, 424-428)에 따르면, 교육의 이슬람화는 단순히 교리와 언어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는 꾸란에서 밝히고 있는 개념과 가치의 의미구조를 수용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다른 모든 주제를 인지하는 틀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

국가에서는 국가와 종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슬람의 교리는 이를 통합된 것으로 간주한다. 필리핀 무슬림들이 점점 더 지역적 혹은 언어·문화적 차이를 넘어 이슬람을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 사회가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강화시켰다(Milligan 2003, 487-488). 또한 필리핀 정부는 교육정책을 통해 무슬림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필리핀 주류사회에 존재하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교육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Milligan 2006, 439). 이러한 교육현실은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의 국민적 연대의식을 쌓기 보다는 상호 차이점만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교육의 분권화로 인해 이슬람 교리의 급진주의적 해석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강화시켜 오히려 분리주의 운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 정부와 무슬림 반군세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을 지속하고 있을 때, 중재자로서 외부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경험적으로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외부 이슬람 세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와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외부 이슬람 세계의 중재는 MNLF나 필리핀 정부 어느 쪽에 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단지 이들은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 고통 받는 무슬림 대중들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협상의 지연은 필리핀 무슬림 대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장기적 안목보다는 조속한 타결만을 양측에 촉구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들의 입장은 근대적 국가체제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트리폴리 협상과정에서 OIC는 MNLF로 하여금 독립국가 수립을 포기하고 정치적 자치권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트리폴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협상에서도 OIC는 마르코스 정부의 무슬림 사회에 대한 분열정책을 묵인함으로써 MNLF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Mustafa 2010, 40; Wadi 1993, 273-274). 비록 국제 이슬람세계의 관심과 도움이 모로 분리주의 운동의 밑거름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분리독립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에는 지지를 유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슬

람 국가들도 자국 내에서 소수민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지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이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끊임없이 내부적 분열을 유발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MILF가 현 아키노 행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한 평화협정의 내용은 홍콩을 모델로 한 ‘한 국가 두 체제’를 기본틀로 하고 있다. 세부 집행방안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현 행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까지 민다나오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계획대로 성취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는 과거에 경험한 바와 같이 무슬림 반군을 대표하여 MILF가 필리핀 정부와 합의한 평화협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필리핀 무슬림 사회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제시한 “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필리핀 주류사회의 합의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최종 시행안이 나올 경우 헌법적 해석과 여론이 어떻게 작동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요약하면, 1960년대 말에 시작된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이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필리핀 정부의 미약한 분쟁 해결 능력과 분리주의 운동세력의 지속적인 분열, 그리고 외부세력의 미온적이고 근시안적인 중재 행태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요소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은 어떠한 형태로든 결말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 V. 맺음말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은 독립 후 중앙정부가 추진한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 무슬림 사회의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운동

의 추진력은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이슬람 부흥운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교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된 이슬람 부흥운동은 오랫동안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전통적인 관습과 혼합되어 있던 이슬람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불어 외부 이슬람 세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과 종족 단위로 분열되어 있던 필리핀 무슬림들을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민족 정체성, 즉 모로 민족주의를 탄생시켰다. 모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분리·독립 운동은 본질적으로 서구식 근대화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대안적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슬람 부흥운동을 통해 성장한 근대적 성향의 젊은 필리핀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국가정체성의 기초로 삼고 있는 필리핀 국가체제 속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미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전통적 무슬림 엘리트들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마르코스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시기에 젊은 무슬림들이 주축이 되어 분리·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슬람 정체성의 강화가 분리주의 운동의 배경을 제공했지만, 반군을 조직하여 정부군과 무력투쟁을 전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현실적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의 분쟁해결 능력과 반군세력의 저항능력, 그리고 외부의 지원과 같은 요인들이 어떠한가에 따라 분리주의 운동의 운명이 결정된다. 필리핀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치·경제적 환경과 분쟁을 둘러싼 주체들의 역량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경제발전의 지체,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층분화의 지속과 같은 필리핀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사회 통제력을 강화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반군세력은 비록 무슬림 정체성에 바탕을 둔 모로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결합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지역과 종족의 분열구조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에 초기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는 OIC나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비록 국적을 초월한 이슬람 형제애를 바탕으로 평화협상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근대적 주권국가 체제 하에서 소수민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므로 분쟁의 일시적 안정에 치중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각 주체별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들이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을 지속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속되는 무력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필리핀 정부와 무슬림 반군세력의 입장 간에는 국가체제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필리핀 정부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영토주권 문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반군세력은 정교일치의 원칙하에 독립된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 이상 무력에 의한 어느 일방의 굴복이 아닌 상생의 분쟁해결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이와 같은 근본적 차이를 하나의 주권국가 내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의 배양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확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필리핀의 현 엘리트 민주주의 체제가 보다 대중적 참여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반군세력은 모로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통해 이슬람 공동체에 관한 인식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본질이 부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협상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외부세력의 역할은 제3자의 입장에서 협상의 중재자이자 증인으로서 협상의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필리핀 무슬림 민다나오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은 단지 필리핀뿐만 아니라,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소위 '문명의 충돌'로 인한 갈등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 2013년06월25일]

[심사완료일 : 2013년07월24일]

[게재확정일 : 2013년07월31일]

## 참고문헌

- 김정위 (Kim, Jeong-wi). 1993.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지하드 운동.” (Islam Wolljuuija-ui Jihad Undong) 『한국중동학회논총』 (Hanguk Jungdonghakhoe Nonchong) 14: 1-10.
- 이희수 (Lee, Hui-su). 1995a. “특집/이슬람 개혁운동의 현황과 전망: 제4장 마우두디의 사상과 21세기 파키스탄의 이슬람화 운동 - 마아티 이슬라미의 개혁운동을 중심으로.” (Teukjip/Islam Gaehyeokundong-ui Hyeonhwang-gwa Jeonmang: Je4jang Maududi-ui Sasang-gwa 21segi Pakistan-ui Islamhwa Undong - Maati Islami-ui Gaehyeokundong-eul Jungsimeuro) 『한국이슬람학회논총』 (Hanguk Islam Hakhoe Nonchong) 5(1): 265-302.
- 이희수 (Lee, Hui-su). 1995b. “탈식민시대 파키스탄의 이슬람화 운동 - 타블리 자마트의 대중계몽운동을 중심으로.” (Tal-sikminsidae Pakistan-ui Islamhwa Undong -Tabli Jamat-ui Daejung Gyemong Undong-eul Jungsimeuro) 『민족학연구』 (Minjokak Yeongu) 1: 267-299.
- 정상률 (Jeong, Sang-ryul). 2012. “마우두디(Abul A’ala Maududi)의 정치경제 사상 - 이슬람국가론을 중심으로.” (Maududi-ui Jeongchi Gyeongje Sasang - Islam Gukkaron -eul Jungsimeuro) 『한국중동학회논총』 (Hanguk Jungdong Hakhoe Nonchong) 33(1): 31-58.
- Bakuludan, Samier M. 1996. “A Study on the Pattern of Political Leadership in kabuntalan, Maguindanao(1898-1993).”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Bandahala, Basher Balla. 1994. “The Tabligh in A Muslim Community: A Case Study of Tabligh in Campo Islam, Zamboanga City.”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Beckett, Jeremy. 1995. “Political Families and Family Politics Among the Muslim Maguindanaon of Cotabato.” Alfred W. McCoy, eds. *An Anarchy of Families: State*

- and Family in the Philippines*. pp. 285-309.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Brown, David. 1988. "From Peripheral Communities to Ethnic Nations: Separatism in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61(1): 51-77.
- Buendia, Rizal. 2005. "The State-Moro Armed Conflict in the Philippines: Unresolved national question or question of governance?"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1): 109-138.
- Calimba, Maulawi L. 1990. "Muslim Intellectuals' Contribution to Islamic Resurgence in the Philippines: A Historical Survey."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Esmula, Jadjá Eleanor S. A. 1994. "The Impact of Tabligh and Da'wah in the Socio-Religio Transformation in Jolo."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Finley, John P. 1915. "The Mohammedan Problem in the Philippines I." *The Journal of Race Development* 5(4): 353-363.
- Finley, John P. 1916. "The Mohammedan Problem in the Philippines II." *The Journal of Race Development* 7(1): 27-46.
- Geertz, Clifford. 1962. "The Inte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the New States." C. Geertz, eds. *Old Society and New States*. pp. 105-157. New York: The Free Press.
- Gellner, Ernest. 1981. "Nationalism." *Theory and Society* 10(6): 753-776.
- Gowing, Peter G. 1979. *Muslim Filipinos: Heritage and Horizon*. Quezon City: New Day Publishers.
- Gurr, Ted Robert. 1993. *Minorities at Risk, A Global View of Ethnopolitical Conflict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 Islam, Syed Serajul. 1998. "The Islamic Independence Movements in Patani of Thailand and Mindanao of the Philippines." *Asian Survey* 38(5): 441-456.

- Jairi, Fainur G. Estino. 2007. "Misuari's Ideology: A Critical Inquiry on the Islamicity of MNLF Ethnic-Oriented Pagluwas-Lungsad (Struggle)."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Kamlan, Jamail A. 2003. "Ethnic and Religious Conflict in Southern Philippines: A Discourse on Self-Determination, Political Autonomy and Conflict Resolution," In a lecture presented at the Islam and Human Rights Fellow Lecture, organized by the Islam and Human Rights Project, School of Law, Emory University, Atlanta, GA, November 04, 2003.
- Lapidus, Ira M. 1997. "Islamic Revival and Modernity: The Contemporary Movements and the Historical Paradigms."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0(4): 444-460.
- Lewis, Bernard. 1990. "The Roots of Muslim Rage."  
<http://www.theatlantic.com/doc/print/199009/muslim-rage?x=37&y=8>  
(Accessed 15 April, 2013).
- Magdalena, Federico V. 1977. "Intergroup Conflict in the Southern Philippine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Peace Research* 14(4): 299-313.
- Majul, Cesar Adib. 1988. "The Moro Struggle in the Philippines." *Third World Quarterly* 10(2): 897-922.
- Majul, Cesar Adib. 1999. *Muslim in the Philippine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McKenna, Thomas M. 1988. "Persistence of an Overthrown Paradigm: Modernization in a Philippine Muslim Shantytown."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44(3): 287-309.
- McKenna, Thomas M. 1998. *Muslim Rulers and Revels: Everyday Politics and Armed Separatism in the Southern Philippine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lligan, Jeffrey Ayala. 2003. "Teaching between the Cross and the Crescent Moon:

- Islamic Identity, Postcoloniality, and Public Education in the Southern Philippin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7(4): 468-492.
- Milligan, Jeffrey Ayala. 2006. “Reclaiming an Ideal: The Islamization of Education in the Southern Philippin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0(3): 410-430.
- Mustafa, Alfathi S. 2010. “Moro Movement Diplomacy: Its Past Triumph and Failure and Hopes for Tomorrow.”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Mutalib, Hussin. 1990. “Islamic Revivalism in ASEAN States: Political Implications.” *Asian Survey* 30(9): 877-891.
- Noble, Lela Garner. 1976. “The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in the Philippines.” *Pacific Affairs* 49(3): 405-424.
- Noble, Lela Garner. 1981. “Muslim Separatism in the Philippines, 1972-1981: The Making of a Stalemate.” *Asian Survey* 21(11): 1097-1114.
- Panda, Ali B. 1989. “Ulama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ase of the OMPA Party in Lanao Del Sur.”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Puntukan, Ibhohajar A. 1992. “PAGKAWASA: A Study of the Struggle for Political Power Among Contemporary Tausug Elites.”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Salamat, Hasim. 1998. “MILF Leader to “Nida’ul Islam.”  
<http://www.fas.org/irp/world/para/docs/ph2.html> (Accessed 15 April, 2013).
- Stern, Tom. 2012. *Nur Misuari - An Authorized Biography. Mandaluyong City*: Anvil Publishing, Inc.
- Tulib, Ismaeil Hassanin Ahmad. 1991. “The Muslim Filipino Scholars to Egypt: Their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Muslim Communities In The Philippines.”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Wadi, Julkipli M. 1993. "Islamic Diplomacy: A Case Study of The OIC and the Pacific Settlement of the Bangsamore Question(1972-1992)."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ABSTRACT

---

### Conflict of Identity: Islamic Resurgence and the Muslim Separatist Movement in the Philippines

KIM Dong Yeob

H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tries to figure out the influence of the wide spread Islamic resurgence movement on the Philippine muslim community, and more specifically on the effects given to the development of the separatist movement in the Philippine Mindanao. The muslim separatist movement in the Philippines is an outcome of the communal sense of marginalization and deprivation resulting from the modernization proces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ver since the independence. However, the more fundamental energy, which made possible to outbreak the separatist movement, could be found in the Islamic resurgence movement that slipped into the Philippines during the earlier days. The Islamic resurgence movements in the Philippine Mindanao was characterized by the missionary works and education activities, and these activities created an unified Islamic national identity, so-called Moro nationalism, among the traditionally divided Philippine muslim community. Based on the unified identity Philippine muslims striv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slamic state, and ceaselessly engage in conflict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Despite the continuous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during the past 50 years, the conflict has not come to an end until today. The reason could be found in the weak central government power to handle communal conflicts, the continuous

breakup of the muslim power block, and the half-hearted and short-sighted arbitration of the third party. Unless the three factors remain constant, the conflict of identity in the Philippine Mindanao would be continued.

**Keywords** The Philippines, Muslim Mindanao, Separatist Movement, Islamic Resurgence, Moro Nationalism